

새 시대의 지평을 여는 중추

민주정의당 당원들에게 보내는 친서

1981년 3월 6일

친애하는 당원동지께!

새 시대 제5공화국은 국민적 화합과 세계의 축복 속에 우렁찬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화와 갈등으로 얼룩진 구시대는 가고 온 국민이 마음과 힘을 뭉쳐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80년대 새 역사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동지와 새 역사창조의 대열에 함께 서기로 결심한 보인은 정의로운 새 나라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분투하시는 동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구시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중추세력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의 국력이 북한공산주의체제를 압도할 수 있도록 키워 바로 우리 세대에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영광된 민족적 주체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이 나라에 등장했던 과거의 어느 정당과도 그 사명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며, 동지는 어느 정당의 당원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의 백만정예당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틀을 굳건히 닦아가기 위하여 먼저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정착하고 그 바탕 위에서 온 국민의 대단합속에 힘찬 전진을 계속하여 나가는 데 그 선도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0년대 우리의 국민적 전진은 또 한번 국력의 일대도약을 결과하여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동지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사명을 앞장서 수행해 나갈 조국의 선택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념과 뜻을 모아 손에 손을 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역사적 소망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당면과제는 새로운 정치풍토의 시금석이 될 제11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치르면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지의 헌신적인 면려와 정진을 당부드리면서, 동지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